

## 31 ● 제조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이명

성별	남성	나이	53세	직종	생산공	직업관련성	낮음
----	----	----	-----	----	-----	-------	----

### 1 개요

근로자 ○○○은 2010년 8월 □사업장에 입사하여 편조기를 감시하는 일을 하던 중 2011년 5월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였다. 난청이 호전된 이후 이명이 발생하여 지속되자 2011년 10월 대학병원을 방문하였고 이명을 진단받았다.

### 2 작업환경

○○○은 고등학교 졸업 후 1985년 □사업장에 입사하여 자동차부품 생산 공정 중 단조공정에서 12년간 일하였다. 그 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◇사업장에서는 도어 힌지(door hinge)를 만드는 작업을 11년간 하였다. 두 사업장 모두 소음이 현 사업장처럼 심한 곳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. 그 이후 현 사업장에 입사 전까지의 사업장 근무는 모두 단기간이었다. 군 복무는 병역특례로 3년간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였다. ◎사업장은 분리막 전문생산업체로서 막(membrane), 모듈(module)을 제조하며 공정 및 시스템 개발 등도 담당하고 있다. 분리막은 가는 빨대(straw)의 형태로서 외피를 덮는 편조 과정을 거치며 모듈의 형태로 최종 생산된다. 2010년 8월에 입사하여 1층의 편조실에 근무하던 중 이명이 발생하자 2011년 10월 2층의 막(membrane) 생산 공정으로 근무 장소를 변경하였다. 변경하기 전까지 편조실의 편조기를 감시하면서 실을 교체하는 일을 담당하였다. 근무 시간은 8시 30분부터 18시까지이다. 2011년 4월에 소음 측정치 는 86.4dBA이었다. 본 연구원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소음측정을 실시하였고 편조실의 문을 닫았을 때 소음이 LAeq=98.4dB, 문을 열었을 때는 96.2dB에 달했다.

### 3 의학적 소견

○○○은 2010년 8월부터 편조실에서 근무하던 중 2011년 5월경 갑자기 좌측 귀가 먹먹하면서 전혀 들리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여 퇴근 후 진료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진료시간이 끝나서 여의치 않았는데 다음날 일어나보니 증상이 호전되어

있었다.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여 실시한 순음 청력검사 결과는 ○○○의 진술과 달리 의무기록에는 우측 귀의 증상을 주소로 내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. 그 후 매미소리가 들리는 이명 증상이 발생하였고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.

#### 4 고찰 및 결론

○○○은 근무 중 갑작스런 난청과 이명이 발생하였는데, 이명의 원인이 다양하고, 소음노출이 인정되나 순음청력손실이 15dB에 불과하여 소음에 의한 이명발생의 업무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였다.